

## 1956년 “8월전원회의 사건” 재론

김일성의 인사정책과 ‘이이제이’식 용인술

김규범\*

1956년 “8월전원회의 사건”은 김일성과 다른 계파 간의 권력경쟁, 또는 정책노선을 둘러싼 갈등의 산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자료들은 ‘8월그룹’이 북한체제수립기부터 김일성 체제의 강화와 각종 정책노선들에 적극 협조해 오다가, 1956년 초 자신들이 권력의 핵심부에서 도태되자 김일성 체제를 비판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1945년부터 1956년 8월까지 김일성과 8월그룹의 협력과 갈등 전 과정을 토론했으므로써 “8월전원회의 사건”의 원인을 재조명하였다. 갈등은 스탈린 사후 변화된 중소의 사상과 정책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김일성이 선제적으로 취한 인사교체에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핵심권력에서 도태된 소수의 연안계와 소련계 간부들은 1956년 2월 스탈린격하운동을 계기로 연대하고 김일성에게 인사정책 수정을 요구하였다. 김일성은 이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진압에 나섰으며,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소련의 의향을 적극 이용하였다. 8월전원회의에 앞서 개최된 상무위특별회의에서 8월그룹의 패배는 확실시되었으며, 전원회의의 당일은 승패를 재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하였다.

주제어: 김일성, 소련, 8월그룹, 소련공산당제20차당대회, 8월전원회의

\* 중국 베이징대학교 박사과정.

## 1. 머리말

1956년 8월 30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연안계(系) 출신 상업상 겸 중앙위원 윤공흠은,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와 조선노동당의 각종 결함들을 비판하면서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이하 ‘소공20차당대회’로 약칭)에서 강조된 집체지도원칙과 개인숭배 비판의 이행을 주장하였다. 윤공흠의 발언은 즉각 제지되었으며, 김일성을 지지하는 다수의 중앙위원들은 그를 격렬하게 비판하였다.<sup>1)</sup> 다음 날, 당 중앙위원회는 최창익, 윤공흠, 박창욱, 서희 등 김일성 및 당 지도부에게 비판을 제기했던 간부들의 직무와 당적을 박탈할 것을 결정하였다.<sup>2)</sup> 이후 “8월전원회의 사건”으로 불리게 된 이 사건은 북한도 인정하고 있는 김일성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9월 중소공동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결정서를 취소시킨 “중소공동간섭”의 계기가 되었다.<sup>3)</sup> 이 때문에 “8월전원회의 사건”은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8월전원회의 사건” 연구에 있어서 김일성과 반대파 간(本) 논문에서는 “8월그룹”으로 통칭함<sup>4)</sup> 갈등 원인, 8월그룹의 목적, 소련의 태도는

- 
- 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윤공흠의 8월전원회의 당일 발언원고”(1956/08/30), ГАРФ, ф. 5446, оп.98, д.721, лл.182 -202; “이바노프(V. Ivanov) 대사와 박의완회담”(1956/09/06), РГАНИ, ф.5, оп.28, д.410, лл.326~332.
  - 2) “최창익, 윤공흠, 서희, 리필규, 박창욱 등 동무들의 종파적 음모 행위에 대하여”(전원회의 결정 1956/08/30~31), 『결정집(1956년도)』(평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56), 12~17쪽.
  - 3) 『조선로동당력사교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361~366쪽.
  - 4) 본 논문에서는 1956년 김일성 및 당 지도부 비판에 참여하거나 동조한 인사들을 “8월그룹”이라고 통칭하였다. 연안계는 최창익, 김두봉, 윤공흠, 서희, 이상조, 고봉기, 리필규, 김강 등이며, 소련계는 박창욱과 김승화 2명이다.

중요한 논점이 되어왔다. 기존 연구들은, 김일성과 8월그룹이 서로 다른 혁명경력과 정책노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로 “경쟁” 혹은 “견제”하던 관계라고 인식하였다.<sup>5)</sup> 대다수 냉전시기 연구들과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는 파벌투쟁의 시각에서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해방 이후부터 김일성과 당내 패권을 두고 경쟁하였던 4개 파벌 중, 중국과 소련을 각각 정치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연안계”와 “소련계”가 소공20차당대회를 계기로 연대하여 김일성 체제의 전복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한편, 오키노기 마사오와 이종석, 서동만 등은 북한의 공식 문서들을 근거로 정전 이후 경제복구 과정에

---

5) 학계는 일반적으로 북한지도부 인사들을 일제강점기 혁명경력 및 출신에 따라 김일성계, 소련계, 연안계, 남로당계(혹은 국내계)로 구분하였으며, 이들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합종연횡하는 “파벌” 혹은 “계파”로 인식하였다. Dae-So 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A. Lankov,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aization 1956*(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Masao Okonogi, “North Korean Communism: In Search of Its Prototype,” Suh Dae-Sook, *Korean Studies: New Pacific Curren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서울: 역사비평사, 2003);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5); 백준기, “1950년대 북한의 권력갈등의 배경과 소련,”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서울: 역사비평사, 1998), 438-489쪽; 윤경섭,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정체성·구조』(과주: 한울, 2010); 沈志華, 『最后的天朝—金日成与中朝关系』(香港:香港中文大学出版社, 2018). 반면 제임스 퍼슨은 출신별 “파벌” 혹은 “계파”의 존재를 부정하였으며, 8월그룹을 스탈린 사후 소련의 신노선을 수용한 “개혁파”라고 주장하였다. James Person, “We Need Help from Outside: The North Korean Opposition Movement of 1956,”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Paper#52*(Washington DC, Woodrow Wilson enter, 2006); James Person, North Korea in 1956: reconsidering the August Plenum and the Sino-Soviet joint intervention, *Cold War History*(2018), pp.1~22.

6)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A. Lankov,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aization 1956*,

서 김일성 중심의 중공업 중시 그룹과 8월그룹 중심의 소비재 중시 그룹 간 정책갈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두 그룹은 농업협동화 실행 및 그 속도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으며, 이러한 노선 및 정책갈등이 “8월전원회의 사건”으로 비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유사한 맥락에서, 제임스 퍼슨(James Person)은 러시아 외교문서를 이용하여, “8월전원회의 사건”은 “사회주의 발전전략”에 대한 이견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연안계 최창익과 소련계 박창옥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가 스탈린(Joseph Stalin) 사후 소련에서 제기된 “신노선(New Course)”을 수용하도록 김일성을 압박했으며, 이들의 목적은 김일성 타도라기보다 소련의 신노선을 김일성이 받아들여도록 설득하는 데 있었다고 주장하였다.<sup>8)</sup>

---

7) 오키노기 마사오, 이종석, 서동만 등은 정전 이후, 중공업 우선 정책과 농업협동화의 추진을 둘러싼 전후 경제노선 투쟁이 1956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소공20차대회의 스탈린격하운동 등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권력투쟁으로 비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Masao Okonogi, “North Korean Communism: In Search of Its Prototype,” pp.184~188;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261~266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1945~1961)』, 680~700쪽]. 윤경섭은 위 견해에 동의하고, “정진체제” 및 “대남통일노선”에 대한 인식과 당의 간부 및 인사정책에 대한 당내 갈등도 있었음을 부연하였다[윤경섭,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반면, 백준기는 북한지도부 갈등 원인을 노선 자체가 아닌 집행과정에서 찾았다. 그는 1955년 초 북한에서 기근과 각종 정책실패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이 책임 문제로 인해 지도부 내부에서 갈등이 격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백준기, “1950년대 북한의 권력갈등의 배경과 소련,” 438~489쪽).

8) 신노선이란, 스탈린 사후 소련에서 출현한 정치, 외교, 경제방면의 정책 전환을 가리킨다. 주로 집체지도원칙의 준수, 평화외교, 과도한 중공업 위주 공업정책과 급진적 농업협동화 정책에 대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퍼슨은 사회주의 진영의 상황을 잘 아는 국제주의자이자, 개혁성향을 가진 최창익, 박창옥 등 간부들이 북한에서도 신노선의 이행을 추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James Person, “We Need Help from Outside: The North Korean Opposition Movement of 1956”; James Person, “North Korea in 1956: Reconsidering the August Plenum and the

이전 연구들은 장차 “8월그룹”이 되는 김일성 반대세력이 해방 혹은 정전 이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1956년 이전부터 김일성 개인숭배와 경제정책들에 대해 비판과 수정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공개된 자료들은 “8월그룹” 성원들이 북한체제 수립기부터 김일성의 권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8월그룹 최창익, 박창옥, 윤공흠 등은 지도부에 참여한 이래 김일성 우상화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가이와 박헌영의 숙청에 앞장섰으며 이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위직에 오르기까지 하였다.<sup>9)</sup> 따라서 본래 8월그룹은 김일성과 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일방적으로 충성하는 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또한, 최근 공개된 러시아와 북한 자료들은 8월그룹이 1956년 초 자신들이 정치적 위기에 처하기 이전까지는 김일성 독재 및 개인숭배에 순응하였으며, 오히려 전후경제정책의 실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김일성 정권의 공고화에 협조하였음을 보여준다.<sup>11)</sup> 따라서, 소련발 ‘신노선’의 이행여부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그들이 김일성 체제를 비판하고 심지어 축출하고자 하였다는 주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당내투쟁에 대한 소련의 태도에 대해서도 상반되는 주장들이 존재한다. 이종석은 소련이 8월그룹을 지지하고, 김일성 퇴진을 추

---

Sino-Soviet joint Intervention”.

- 9) 『해방후10년일지(1945~1955)』(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5), 172~173쪽.
- 10) 연안계와 소련계가 김일성 체제 내에서 “하위권력자원”을 두고 경쟁하였다고 주장한 백준기의 연구가 있지만,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여전히 8월그룹을 김일성과 경쟁하는 다른 계파로 인식하고 있다. 백준기, “1950년대 북한의 권력갈등의 배경과 소련,” 438~489쪽.
- 11) “라자레프 대리대사와 박창옥 대담기록”(1953/09/12), 『북한관계사료집』(이하 “사료집”으로 약칭), 73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3), 71쪽; “라자레프 대리대사와 박창옥 대담기록”(1954/12/24), 『사료집』, 73권, 197~198쪽.

구하였다고 주장한다.<sup>12)</sup> 반면, 샬론타이(Balazs Szalontai), 셴즈화(沈志華) 등은 소련이 김일성 정권의 각종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폴란드, 헝가리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북한에서 정치적 동요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본 논문은 지금까지 공개된 러시아, 북한, 중국의 1차 사료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8월전원회의 사건”의 주요 논점들을 재조명하였다. 첫째, 1945년 9월부터 1956년 초까지 김일성과 8월그룹은 정치적, 정책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김일성과의 권력경쟁 혹은 상이한 정책을 이유로 대립각을 세웠다는 반대세력은 1956년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둘째, 스탈린 사후 시작된 김일성의 인사교체에 의해 추후 8월그룹이 되는 인사들이 핵심권력에서 배제되는 과정과 1956년 소공20차당대회 이후 김일성과 8월그룹 간 협상의 핵심적 쟁점을 자세히 토론함으로써, 8월그룹의 근본적인 불만을 밝혔다. 셋째, 1956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에 걸쳐 전개된 북한의 당내 투쟁에 대한 소련의 태도와 중재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

12)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276~277쪽.

13) Balazs Szalontai, “You Have No Political Line of Your Own: Kim Il Sung and the Soviets 1953~1964,”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14/15*(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2004) p.87; 沈志華, 『最后的王朝—金日成与中朝关系』, pp.344~345; A. Lankov,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ization 1956*, pp.103~115.

## 2. 1945~1955년 김일성 체제의 강화와 8월그룹 성원들의 협력

1945년 9월, 북한으로 돌아온 김일성은 소련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체제 수립에 착수하였다. 10월 13일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김일성과 그 지지세력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설립함으로써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 서울중앙위원회의 지도로부터 사실상 벗어났다. 이후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북한의 토착공산주의자들을 흡수하면서 김일성 중심의 지도체제로 변모되어 갔다.<sup>14)</sup>

같은 시기, 중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차례로 입북하였다. 해방 직후 중국 동북지역에서 소련군을 도와 위수 업무에 종사하였던 소련극동군 제88독립여단(이하 ‘제88여단’으로 약칭) 출신 조선인들이 입북하였으며, 소련군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련 각 지역에 거주하던 조선계 소련인들도 수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들어왔다.<sup>15)</sup> 이뿐만 아니라, 1945년 12월부터 중국공산당 지도하에

---

14) 『조선로동당력사교재』, 129~130쪽; 김광운, 『북한정치사 1: 건당·건국·건국의 역사』(파주: 선인, 2003), 163쪽.

15) 제88여단출신 최용건, 강건, 김광협의 입북은 다음을 참고.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162쪽. 소련이 북한으로 파견한 소련거주 한인들은 학계로부터 “소련계 조선인(Soviet Koreans)”으로 불려왔으며, “조선인”과 “소련공민”이라는 이중정 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입북한 조선인들과는 달리 이들은 1955년 말~1956년까지 조선 국적없이 소련 국적만 보유한 범적으로 완전한 소련인이었다. 따라서, “조선계 소련인”으로 명명하는게 더 적합할 것이다. 다만 정치계파로서 이들을 지칭할 때는 “소련계”라는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들의 입북과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김국후,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스탈린이 급파한 고려인 500명의 슬픈 역사』(파주: 한울, 2013); 장학봉, 『피와 눈물로써 써여진 우리들의 력사』(미국의회도서관소장 미출간

중국에서 활동하였던 조선독립동맹 및 조선의용군 소속 조선인(이후 “연안계”로 약칭)들도 차례로 귀국하였다.<sup>16)</sup>

제88여단 출신 조선인들과 조선계 소련인들은 소련의 지시에 따라 김일성 체제 강화에 협조하였다. 최용건, 강건 등 제88여단 출신들은 김일성의 추종세력이 되었으며, 조선계 소련인 허가이, 김열 등과 소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김용범, 박정애 등은 김일성을 적극 지지하면서 토착공산주의자들 포섭에 앞장섰다. 조선계 소련인들은 특히 정치교양 및 선전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박창옥, 기석복 등은 언론기관 및 문학예술단체를 통해서 소련의 사상 및 제도를 북한에 이식하는 동시에, 대중에게 김일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우상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후 8월그룹이 되는 박창옥은 『로동신문』과 선전선동부 총책임자로서, 김일성을 민족영웅이자 민주개혁의 지휘자로 선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17)</sup>

연안계도 김일성을 지지하였다. 무정, 박일우, 이상조 등 연안계 군인들은 당의 인사정책을 담당하는 간부부장에 차례로 임명되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된 지도체제의 확립에 기여하였다.<sup>18)</sup> 김두봉, 최창익 등 연안계 지식인들은 조선신민당을 창당하여 북한의 지식인 계층을 조직화하고, 1946년 8월 북조선 분국과의 합당을 추진함으로써

---

원고).

- 16) 연안계 간부들의 귀국은 다음을 참고할 것. 최강, 『조선의용군사』(연변: 연변인민출판사, 2006), 190쪽;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권(서울: 중앙일보사, 1992), 142쪽.
- 17) “소련대사관 서기관 비야코프와 조선과학원 도서관 관장 정릉 회담기록”(1956/04/05), РГАНИ, ф.5, оп.28, д.410, лл.126~128; 정상진, 『아무르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서울: 지식산업사, 2005), 58쪽.
- 18)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936쪽; “내무상 박일우 평정서”(1948/12/25), ЦАМОРФ, ф.142, оп.540936, д.1, лл.26~27.



씨 김일성 지지층을 지식인 계층까지 확장시키는 데 공헌하였다.<sup>19)</sup>

최창익, 윤공흠 등 연안계 간부들은 김일성 우상화에도 적극 호응하였다.<sup>20)</sup> 조선독립동맹주석이자 저명한 학자였던 김두봉은 김일성대학 초대총장을 맡았으며, 북조선노동당위원장 신분임에도 김일성을 최고 지도자로 예우하였다. 8월그룹의 지도자로 지명되어 비판받았던 최창익은 자신의 저서 및 발표문에서 김일성을 “조선민족해방투쟁의 주류”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 “조선 민족의 영명한 영도자인 김일성 장군의 올바른 지도가” 없었다면 “민주건설”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항일민족영웅 및 사회주의정권 지도자 김일성의 형상을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sup>21)</sup>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1949년 6월 남과 북의 노동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은 당과 내각의 최고직책을 독점하였으며, 이로써 자신의 권력을 한층 더 공고화하였다. 그러나 일 년 뒤 발발한 한국전쟁은 북한정치 및 김일성 체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50년 9~10월 대규모 패배 이후, 김일성은 위신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위간부들과 갈등이 표출되었다.

먼저, 당과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당원확대정책에서 김일성과 소련

---

19) 김두봉, “신민당주석 김두봉씨 보고(1946년 7월 29일),” 심지연, 『잊혀진 혁명가의 초상: 김두봉연구』(서울: 인간사랑, 1993), 260~261쪽에서 인용.

20) 윤공흠의 적극적인 김일성 개인숭배 활동은 북한지도부 내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이바노프 대사와 건설상 김승화 회담기록”(1956/05/05), РГАНИ, ф.5, оп.28, д.412, л.219~222.

21) 최창익 외, “조선민족해방투쟁사,” 심지연, 『최창익연구』(서울: 백산서당, 2009), 459~544쪽에서 인용했다. 최창익, “인민은 역사의 기본 추진력,” 『근로자』, 1947년 제9호; 최창익, “김일성동지는 항일유격투쟁의 조직지도자이다,” 『로동신문』, 1952년 4월 18일, 3면.

계 허가이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김일성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농민과 민주청년동맹을 위주로 당원을 확장하고자 하였던 반면, 허가이는 당원의 질적 수준과 노동계급 비율을 명분으로 들며 김일성 방식에 반대하였다.<sup>22)</sup> 뒤이어 정치교양 및 선전부문에서 김일성과 박헌영 간 갈등도 표출되었다. 문학예술계에서는 “수령”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중 어떤 것을 선전정책의 중심에 둘 것인가라는 민감한 정치문제를 두고 양 세력 간 대립전이 발생하였다.<sup>23)</sup> 이 두 차례 갈등은 공통적으로 전쟁시기 극단적으로 팽창하는 김일성 개인 권력에 대한 반감 및 견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일성과 2명의 당 부위원장들의 갈등과정에서 즉 8월그룹을 포함한 대다수의 소련계와 연안계는 김일성의 편에 섰다. 박창옥은 허가이와 박헌영 숙청의 선봉을 맡았다.<sup>24)</sup> 김두봉, 최창익, 리필규 역시 박헌영 및 남로당계 숙청을 지지하며 신문과 각종 출판물에 김일성 체제를 옹호하는 사실들을 연이어 발표하였다.<sup>25)</sup> 윤공흠은 박헌영 및 남로당

- 
- 22) “당 장성사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들,” 『로동신문』, 1951년 10월 3일, 1면; 김일성, “당단체들의 조직사업에서의 몇가지 결합들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김일성선집』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289~327쪽.
- 23) 엄호석,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우리 문학,” 이선영·김병민·김재용 엮음, 『현대문학비평자료집 2』(서울: 태학사, 1993), 185~207쪽에서 인용; 배개화, “당, 수령, 그리고 애국주의: 이태준의 경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7호(2012), 169~206쪽.
- 24) “수즈달레프대사와 허가이 회담기록”(1953/06/30), 『사료집』, 73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3), 35~37쪽; “내가 치른 북한 숙청: 전 내무상 부상 강상호 증언,” 『중앙일보』, 1993년 2월 1일, 11면.
- 25) 최창익, “김일성 장군의 교시를 지침으로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가 되자,” 『로동신문』, 1952년 3월 24일, 1면; 리필규, “김일성 장군의 교시를 지침으로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가 되자,” 『로동신문』, 1952년 3월 30일, 1면; 윤공흠, “수령의 교시를 실천하기 위한 평양시 당단체의 투쟁,” 『로동신문』, 1952년 9월 1일.

계 지지자를 색출하기 위해 진행된 “제5차전원회의문헌토의사업”에서 두각을 보였다.<sup>26)</sup> 이태준, 김남천 등 박헌영계 문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알려진 소련계 문인들조차 중립을 지키거나 이들의 숙청을 묵인하였다.<sup>27)</sup>

전쟁 시기 정치투쟁은 김일성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허가이는 1951년 11월 제4차 전원회의에서 당사업에서 “관문주의(關門主義)”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을 받고 당 부위원장 직위에서 해임되었으며, 이후 자살하였다. 박헌영과 그를 추종하였던 남로당계 간부들은 1952년 12월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반당반 혁명종파주의”를 이유로 대대적 비판을 받고, 정치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다.<sup>28)</sup> 박헌영과 허가이의 몰락은 북한에서 김일성의 일인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정치가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김일성 독주체제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하였다.

한편 박헌영과 허가이 숙청에 앞장섰던 간부들은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랐으며, 남로당계가 차지하고 있었던 직책들은 소련계와 연안계

2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결보고 및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결보고에 대한 주요 토론- 김두봉 동지의 토론(1956년 4월 24일),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1집(서울: 국토통일원 1980), 371~372쪽;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위원 최창익 평정서,” 『북조선실록』, 제1권(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8), 736~738쪽; 윤공흠, “당 중앙 위원회 제5차 전원 회의 문헌은 우리들의 행동 강령이다,” 『근로자』, 1953년 제1호.

27) 기석복, “조국해방전쟁과 우리문학,” 『인민』, 1952년 제2호, 이선영 외, 『현대문학비평자료집 2』, 174~184쪽에서 인용.

28) 박헌영은 1953년 초부터 전개된 제5차 전원회의 문헌토의사업과정에서 연금(軟禁)되었으며, 3월초부터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북한지도부는 같은 해 7월 소련에서 발생한 베리야 숙청사건을 기회로 박헌영 체포 사실을 공식 발표하였다. “박헌영의 비호하에서 리승엽도당들이 감행한 반당적 반국가적 범죄적 행위와 허가이의 자살 사건에 관하여(전원회의 제6차회의 결정서),” 『결정집(1953년도)』, 35~45쪽; “수즈달레프대사와 박창욱 대담기록”(1953/7/2), 『자료집』, 73권, 37쪽.

간부들에게 돌아갔다. 박창옥, 박정애, 박영빈, 박금철은 각각 당 부위원장과 당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되었다. 최창익, 윤공흠, 고봉기, 서희등도 당과 내각 및 예하부서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sup>29)</sup> 8월그룹은 김일성 체제 확립에 기여한 공신(功臣)들이었으며, 허가이와 박헌영 및 남로당계 숙청의 참여자이자 수혜자였다고 볼 수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전후 복구 및 인민경제발전은 김일성 정권의 최우선 당면과제가 되었다. 김일성은 “중공업을 우선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전후 경제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전후 재건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sup>30)</sup> 북한의 전후 경제정책은 소련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작성되었으며, 김일성은 1953년 9월과 11월 각각 소련과 중국을 방문하고 양국지도부의 동의를 받았다. 중소는 모두 북한의 전후 경제계획에 지지를 표하고, 각각 10억 루블과 8억 위안 규모의 경제원조를 약속하였다.<sup>31)</sup>

전후 경제정책의 실행과정에서 8월그룹 성원들은 김일성 정권의 노선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당 부위원장과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차례로 맡았던 박창옥은 전후 경제정책의 실행 전반을 지휘하였다. 그는 소련외교관과 면담에서 “우리의 임무는 공업을 되살리는 것”이며 “공업이 복구될 때까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면서 전후 북한의 현실에서는 소련의 새 지도부에

---

29) 『해방후10년일지(1945~1955)』(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5), 172~173쪽.

30) 김일성, “정전협정체결과 관련하여 전후 인민경제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과 당의 금후임무,”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3~20쪽.

31) “소련과 중국의 대북한경제원조상황에 대한 조사보고”(1953/12/31), ABПPΦ, φ.0102, оп.7, д.47,п.27, лл.115~120;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代表团谈判公报,” 『人民日报』, 1953년 11월 24일, 1면.

의해 강조되던 인민생활수준 향상보다 공업발전이 우선임을 분명히 하였다.<sup>32)</sup> 농업협동화에 대해서도, 그는 낙후된 “농업을 진흥 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농업협동화 실행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김일성 정권 정책노선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sup>33)</sup> 이밖에도, 최창익, 김승화 등 대부분의 8월그룹 성원들은 경제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내각 혹은 기관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며, 김일성 정권의 정책을 지지하며 전후복구3개년계획 실행의 최전선에 섰다.<sup>34)</sup> 서휘와 고봉기 등은 “김일성 동지의 보고와 경제건설에 관한 기타 로작 및 연설들은 우리 일꾼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가리켜 주고 있다”면서 정권의 경제정책을 찬양하고 대중에게 선전하는 데 앞장섰다.<sup>35)</sup>

또한 북한의 전후복구 및 경제발전노선은 1946년과 1953년 소련과 중국에서 시행된 경제정책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중소 양국 모두 전후복구 시기에는 모두 중공업 우선주의를 내세웠으며, 농업협동화를 시행하였다.<sup>36)</sup> 비록 소련이 1955년 북한의 일부 정책적 결함

32) “라자레프 대리대사와 박창옥 대담기록”(1953/09/12), 『사료집』, 73권, 71쪽.

33) “라자레프 대리대사와 박창옥 대담기록”(1954/12/24), 197~198쪽.

34) 김승화는 국가건설위원장 및 건설상, 최창익은 재정상, 윤공흠은 재정상과 상업상을 역임하였다. 서휘는 직업동맹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노동자들에게 당의 지도방침을 교양·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935~968쪽.

35) 고봉기, “조선노동당은 조선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역량이다,” 『근로자』, 1954년 제4호; 서휘, “직업동맹 사업에서의 몇 가지 결함과 전후 인민경제 복구건설에서의 그의 임무,” 『근로자』, 1954년 제10호.

36) Philip Hanson, *The Rise and Fall of the Soviet Economy*(London, Routledge, 2014), pp.25~47; “中共中央关于编制一九五三年计划及五年建设计划纲要的指示,” 『建国以来重要文献选编』, 第三册(北京:中央文献出版社, 1992), pp.448~452.

을 지적하였지만, 이는 경제 노선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 범한 과오를 수정할 것과 계획안보다 빠른 정책추진 속도의 완화를 권고한 수준에 불과하였다.<sup>37)</sup> 따라서, 일부 간부들이 소련의 영향을 받아 중공업 우선정책과 농업협동화 자체를 반대했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또한 일부 러시아 자료들은, 일부 간부들이 지도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비판한 사실을 담고 있지만, 이 역시 식량수매정책 및 현물세 정책 등 일부 정책 실패를 제보한 것이며, 경제노선 전반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다.<sup>38)</sup>

결론적으로, 정전 이후부터 1956년 초까지 북한지도부 내에서는 김일성 체제 및 정책노선을 둘러싼 격렬한 비판 및 갈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며, 행여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8월그룹이 그러한 목소리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8월그룹이 김일성 개인숭배와 정책 결함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시점은 1956년 2월 소공20차당대회 이후였으며, 김일성과 8월그룹의 밀월은 1955년 말~1956년 초를 기점으로 깨졌던 것으로 보인다.<sup>39)</sup> 따라서 김일성과 8월그룹 간 갈등, 즉 “8월전원회의 사건”의 원인에 대한 토론은 해방 이래 10여년 동안 김일성 체제와 정책에 협력하고 순응했던 간부들이 왜 김일성을 비판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세에 대한 정보”(1955/4), РГАНИ, ф.5, оп.28, д.314, л.33~63.

38) “페트로프 대리대사와 신조선 책임주필 송진파 대담기록”(1955/03/29), РГАНИ, Ф.5, оп.28, д.314, л.205~208; “페트로프 대리대사와 자강도인민위원회위원장 박창식 대담기록”(1955/3/ 31), ЦХСД, ф.5, оп.28, д.314, л.187~193.

39) 일부 간부들은 1956년 4월 김일성에게 처음으로 불만을 직접 표명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서휘, 윤공흠의 2인이 중공중앙에 보낸 서신”(1956/09/05), АВПРФ, ф.5446, оп.98, д.721, л.161~181.

### 3. 스탈린 사후 김일성의 선제적 인사교체, 소련공산당제20차당대회와 “8월그룹”의 형성

박헌영 및 남로당계 숙청 이후, 국내에서 김일성에 대한 정치적 위협은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 이후, 소련의 새 지도부가 주창한 집체지도원칙과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은 김일성 정권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 특히 1953년 4월부터 이미 시작된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는 스탈린에 의해 지도자로 낙점된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들에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소(小) 스탈린” 김일성에게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소련의 새 지도부는 자본주의 진영과 전쟁불가피론을 내세운 스탈린과 달리, 자본주의 진영과 “평화공존”을 강조하면서 서구국가들과 관계개선에 나섰다.<sup>40)</sup> 이에 중국 역시 1953년 1월부터 시작한 “제1차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평화공존5원칙”을 내세우며 소련의 평화외교에 적극 호응하였다.<sup>41)</sup> 같은 맥락에서 중소 양국은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와 평화적 통일 추구라는 전략방침을 공유하였으며, 김일성에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과 경제회복에 전념할 것을 요구하였다.<sup>42)</sup> 특히 120만 중국군을 주둔시키고 있었던 중국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1953년 11월,

40) “국제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운동을 전개할 것에 관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의문,” РГАНИ, ф.5, оп.30, д.33, л.64~71.

41) 逢先知·金冲及 主编, 『毛泽东传』(1949~1976), 上(北京: 中央文献出版社, 2003), 545쪽; 김동길·한상준, “제2의 해방: 북한자주화와 1956~57년의 중국-북한관계,” 『국가전략』, 제20권 2호(성남: 세종연구소, 2014).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세에 대한 보고”(1955/4), РГАНИ, ф.5, опоп.28, д.314, лл.33~63.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조선인민군의 병력 및 군비확장에 반대를 표명하며, 안보를 전적으로 중국군에게 맡기고 북한은 전후 경제회복에만 집중할 것을 권유하였다.<sup>43)</sup> 그러나, 미국, 한국과 3년에 걸친 전쟁을 막 끝내고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일성이 반미, 반한 선전의 중지와 평화적 통일 추구라는 중소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힘들었다.<sup>44)</sup>

소련의 새로운 정치노선과 중소 양국의 평화외교에 대한 김일성의 위협 인식은, 국내 인사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김일성은 중소의 사상과 정책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창구, 즉 연안계 중에서는 군 지휘부, 소련계 중에서는 당 조직 및 사상분야에서 종사하는 간부들을 선제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하였다. 1952년과 1953년 사이, 중국지도부 및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온 조중연합사령부 부정치위원 겸 내무상 박일우와, 역시 조중연합사 부사령원을 맡았던 김웅은 군 지휘부에서 해임되어 부대 지휘와는 관련 없는 체신상과 민족보위부장으로 전직되었다.<sup>45)</sup> 또한, 중국인민해방군 제166사단 출신이자, 인민군

---

43) 마오쩌둥은 조선인민군 병력을 당시 29만에서 10만명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김일성의 공군 및 기계화사단 확대 의지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毛澤東第二次接見蘇共中央代表團談話記錄”(1956/09/23),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 소장 미출판 자료.

44) 1955년 2월, 한국의 국회의원을 북한최고인민회의에 초청하라는 소련의 제안에 대하여, 김일성은 “조선의 과업은 남북한의 공존이 아닌 통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위 제안이 여론에 잘못 해석될 수 있다며 거절하였다. “수즈달레프 대사와 남일 대담기록”(1955/03/1), 『사료집』, 73권, 233~234쪽; 김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 주체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 『력사과학』, 제3호(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11~15쪽.

45) “박일우의 반당적 종파행위에 대하여(1955년 12월 전원회의 결정), 『결정집(1955년도)』, 51~56쪽; “이바노프 대사와 김일성 회담기록”(1955/12/07), ЦХСД



제5사단장으로 중국군과 협동작전에 참여했던 방호산 역시 부대 통솔과는 동떨어진 김일성 육군대학교 교장에 임명되었다. 이로부터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박일우와 방호산은 비관을 받고, 정치무대에서 제거되었다.<sup>46)</sup> 이 외에도 다수의 연안계 군인들이 군에서 내각으로 전직되었다.<sup>47)</sup> 이러한 김일성의 인사 조치는 전쟁 시기 확대된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실제로 인사교체를 전후로 중국군과 북한정부 및 인민군과의 교류는 단절되었으며, 북중관계 또한 평양주재 소련대사관이 우려를 표시할 정도로 냉각되었다.<sup>48)</sup>

뒤이어, 당 지도부 및 선전부서에서 소련계가 배제되기 시작되었다. 당 조직 및 선전사업을 총괄하였던 박창옥은 1954년 3월 당 부위원장에서 해임되고 국가계획위원장으로 전직되면서, 당사업에서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sup>49)</sup> 정치교양 전문가였던 중앙당학교 교장 김승화와 『근로자』 책임주필 및 문화선전부상으로 대표적 소련계 인텔리 기석복은 각각 전문성과 관련 없는 건설상과 김일성육군대학 부교장으로 전직되었다.<sup>50)</sup> 이는 김일성이 전후복구사업에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φ.5, оп.28, д.412, л.6~20.

46) “소련대사관 서기관 삼소노프와 김일성육군대학 조선어 및 문학과장 상좌 김민혁과 대담”(1955/01/14), 『사료집』, 77권, 75~76쪽.

47)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과 정전협상 수석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이상조는 소련주재 북한대사로 임명되어 외교방면에서 종사하게 되었다. 리필규는 박일우와 연루되어 내무성에서 화학공업성 책임자로 전보되었다. “페트로프(A. Petr ov) 대리대사와 리필규 대담기록”(1956/7/20) РГАНИ, φ.5, оп.28, д.410, лл.304~308.

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세에 대한 정보(1955년 4월)” РГАНИ, φ.5, оп.28, д.314, л.33~63.

49) “필라토프 참사와 박창옥 대담기록”(1956/03/12), ЦХСД, φ.5, оп.28, д.410, л.73~85.

50) 한국전쟁 정전체결 전후 김승화는 국가건설위원장을 맡았으며, 1955년 내각

명분하에 소련 동향에 밝은 간부들을 당사업에서 격리하고, 내각부서로 진출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핵심 요직인 당 중앙기관지도부는 김일성의 새로운 추종세력들로 채워졌다. 조국광복회 출신 박금철, 리효순, 리송운 등과 국내출신 한상두,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 등은 조직지도부와 간부부 수장에 차례로 임명되었다.<sup>51)</sup> 선전선동부와 김일성 항일투쟁 및 혁명활동을 연구하기 위해 신설된 사회과학부에는 김일성 숭배자 연안계 김창만, 하양천이 임명되었다. 또한 문학예술계에서도 한설야, 홍순철 등 김일성 추종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sup>52)</sup>

한편, 인사교체 과정에서 김일성은 출신별 간부들 간 경쟁을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해 대립구도를 만드는 소위 “이이제이(以夷制夷)”식 용인술을 구사하였다. 당시 북한지도부 내에서 소련계 박창옥, 박영빈과 박일우, 최창익 등 연안계 간부들 간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소련계들은 88여단 출신 최용건과 정일룡, 정준택 등 국내출신 간부들과도 대립하였다.<sup>53)</sup> 김일성은 소련계의 손을 빌려 연안계 군인들을 숙청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국내 출신 및 연안계의 불만을 이용해 소련계를

---

건설상으로 부임하였다. 방호산이 김일성육군대학 교장에서 철직된 후 최용건이 교장, 기석복이 부교장으로 부임하였다. “소련대사관 서기관 삼소노프와 김일성육군대학 조선어 및 문학과장 상좌 김민혁과 대담”(1955/01/14), 『사료집』, 77권, 75~76쪽.

51) 『해방후10년일지(1945~1955)』, 172~173쪽.

52) “사회과학부 사업내용 및 그한계에 대하여,” 『결정집(1953년도)』, 75~77쪽; “이바노프 대사와 김승화 대담기록”(56/05/05), РГАНИ, ф.5, оп.28, д.412, л.219~222.

53) “필라토프 참사와 박창옥 대담기록”(56/3/12), ЦХСД, ф.5, оп.28, д.410, л.73~85; “필라토프 참사와 박영빈 대담”(56/2/25), ЦХСД, ф.5, оп.28, д.412, л.75~83.

통제하였다. 그 결과, 출신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간부들은 김일성의 지지를 필요로 하였으며, 심지어 그를 향한 충성 경쟁까지 출현하였다.<sup>54)</sup> 비록 일부 간부들은 탈스탈린화 사조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개적인 비판은 제기하지 못하였다. 당시 소련대사관의 관찰에 따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일성의 발언은 별도의 토론 없이 그대로 관철될 정도로 “결정적”이었으며, 지도급 간부들조차도 김일성 개인숭배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sup>55)</sup>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정전 후 북한지도부에서 발생한 정치투쟁의 주된 양상은 김일성과 다른 계파 간 갈등이 아닌, 김일성 체제 안에서 소련계, 연안계, 국내출신 간부들이 직책을 두고 경쟁하는 “자리싸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시점까지도 김일성 독재 및 개인숭배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거나 조직적으로 저항을 시도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일성의 과도한 권력집중에 불만을 처음 제기한 쪽은 소련이었다. 1955년 초, 소련지도부는 당내 민주화의 실천적 조치로서, 김일성이 독점한 당 위원장, 내각수상, 군 총사령관 3개의 직책 중, 내각수상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다.<sup>56)</sup> 이에 김일성은 자신의 추종세력이자 북한정계에서 다수의 원망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최용건을 수상후보자로 내세웠다. 그러자 박창옥, 박정애, 김두봉 등 다수 정치위원들은

---

54) *Ibi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세에 대한 보고(1955년 4월),” РГАНИ, ф.5, оп.28, д.314, л.33~63.

55) *Ibid.*

56) 1955년 4월 말, 김일성과 소련지도부 회담에서 최고직책분배문제가 직접 논의되었다. *Ibid.*

최용건의 부족한 업무수행 능력을 지적하면서 그를 수상으로 임명하는 데 반대하였다.<sup>57)</sup>

최용건 수상직 임명문제는 분명 김일성과 일부 정치위원들 간의 의견충돌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들의 반대가 북한의 정치구조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꿔보려는 시도였거나, 김일성 독재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첫째, 위에서 언급했듯 당시 소련계와 연안계 및 국내출신 간부들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존재했다. 양측 모두 김일성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서로 연대하여 김일성에게 대항하기는 불가능했다. 둘째, 1957년 수상 임명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최용건과 김일이 나란히 후보로 거론되었을 때, 정치위원들은 김일성의 또 다른 심복인 김일을 지지하고 최용건의 임명에는 여전히 반대하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최용건의 수상직 임명이 반대에 부딪힌 이유는 그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일부 정치위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sup>58)</sup> 이후 내각수상직 이양문제는 잠정 보류되었으며, 김일성은 계속해서 수상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소련의 정치노선에 대한 김일성의 위협 인식을 더욱 고조시켰다. 비록 정치위원들이 김일성 체제에 저항한 것은 아니었지만, 김일성의 수상직 사임의사를 만류하지 않고 지지한 점, 그리고 김일성이 추천한 인사에 반대한 점은, 김일성 입장에서 소련 사상의 영향력이 지도부 내까지 침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으며, 더

---

57) “필라토프 참사와 대담기록”(1956/03/12), ЦХСД, ф.5, оп.28, д.410, л.73~85; “필라토프 참사와 박영빈 대담”(1956/02/25), ЦХСД, ф.5, оп.28, д.412, л.75~83; “페트로프 대리대사와 신조선 주필 송진과 대담”(1955/04/06), ЦХСД, ф.5, оп.28, д.314, л.200~211.

58) “푸자노프(A. Puzanov) 대사와 박정애 회담기록”(1957/07/02), АВПРФ, ф.0102, оп.13,п.72, д.5, лл.159~162.

나아가, 그들이 소련의 압력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도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sup>59)</sup> 실제로 김일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 이미 유입된 소련 사상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소련계 비판운동을 발동시켰다. 1955년 하반기부터 소련계 간부들에 대한 사찰이 시작되었으며, 다수 소련계 간부들이 각종 과오 및 부패를 이유로 해임되었다. 또한, 이들의 국적문제가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이로 인해 조선계 소련인들은 소련 국적을 포기하고 북한 국적으로 체류하는 방안과 고위직을 포기하고 소련으로 귀국하는 방안을 두고 선택할 것을 강요받았다.<sup>60)</sup> 1955년 12월, 당중앙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소련계 고위간부들을 각종 이유를 들어 비판하였으며, 그 결과 1956년 1월, 박창옥, 박영빈, 기석복, 정률 등 소련계 간부들은 당 지도부 및 선전부서 등 중요 직책에서 해임되었다.<sup>61)</sup>

소련계에 대한 비판과 숙청에서 김일성은 재차 연안계 간부들의 손을 빌렸다. 1955년 12월 김일성의 심복 박금철과 한상두 등은 평양시

59) 박창옥, 박영빈은 모두 최용건 수상직 임명반대를 자신들의 숙청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필라토프 참사와 박창옥 대담기록”(1956/0 3/12), ЦХСД, ф.5, оп.28, д.410, л.73~85; “필라토프 참사와 박영빈 대담”(1956/02/25), ЦХСД, ф.5, оп.28, д.412, л.75~83.

60) 김일성은 이중국적을 선택한 조선계 소련인들을 비판하였으며, 최용건은 “2개의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축출해야 한다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바노프 대사와 김승화 회담기록”(1956/05/05), РГАНИ, ф.5, оп.28, д.412, л.219~222. 조선계 소련인 국적문제와 그들에 대한 비판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조수룡, “전후 북한에서의 소련계 숙청과 국적문제(1954~1958)”, 『동북아역사논총』, 제56호(2017), 246~287쪽.

61) “이바노프 대사와 남일”(1955/12/22), ЦХСД, ф.5, оп.28, д.412, л.96~99; 김일성, “우리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1955년 12월 28일)”,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29~56쪽; “문학예술분야에서 반동적 부르주아 사상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1956년 1월 18일)”, 『결정집(1956년도)』, 49~58쪽.

당 위원장 고봉기를 비롯한 일부 연안계 간부들에게 소련계에 대한 비판운동을 크게 확산시킬 것을 지시하였다.<sup>62)</sup> 이에 따라, 1955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소련계 간부들에 대한 비판 문건들이 평양시당에 하달되었으며, 평양을 중심으로 소련계 간부들에 대한 비판 및 토론이 시작되었다. 이에 김일성 추종세력은 물론, 소련계를 증오하던 최창익, 서휘 등까지 가담하면서 소련계에 대한 비판운동은 전당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소련을 의식한 김일성은 1956년 1월 말을 기점으로 태도를 바꿔 소련계 간부들에 대한 비판이 지나치다고 지적하였으며, 일부 세력이 기회를 틈타 조선계 소련인 전체를 비방하고자 시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63)</sup> 이로써 김일성의 지시를 받았던 연안계 간부들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고봉기는 정치공작의 주모자로 비판받았으며 평양시당위원장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sup>64)</sup> 이후 북한 조야(朝野)에서는 연안계 간부들을 겨냥한 정치적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sup>65)</sup> 이처럼 김일성은 출신별 간부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활용하

- 
- 62) “필라토프 참사와 박창욱 대담기록”(1956/07/21), АВПРФ ф.102, оп.12, д.6, п.68(페이지 수 미상).
- 63) “이바노프 대사와 김일성 회담기록”(1956/01/13), ЦХСД, ф.5, оп.28, д.412, лл.109~116.
- 64) 이와 동시에 김일성은 비판받았던 소련계 간부들을 위로하기 시작하였다. “필라토프 참사와 박영빈 대담”(1956/02/25), ЦХСД, ф.5, оп.28, д.412, лл.75~83; “필라토프 참사와 김승화 담화기록”(1956/03/05), ЦХСД, ф.5, оп.28, д.412, лл.128~132.
- 65) 1956년 2~3월, 박금철, 한상두 등은 김일성 이외의 조선혁명운동세력을 종파주의라고 비난하는 기명사설을 발표하였다. 연안계 간부들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였다. 같은 시기, 최창익은 과거 종파활동 참여이력으로 인해 당내에서 크게 비판받았다. 박금철, “당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의 당성 단련,” 『로동신문』, 1956년 2월 16일; 한상두, “당 건설에서의 몇가지 문제,” 『로동신문』, 1956년 3월 12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서휘, 윤공흡외 2인이 중공

는 ‘이이제이’식 용인술을 통해, 연안계 군인, 당 지도부 및 선전분야에서 중사하는 소련계와 연안계 고위간부들을 차례로 정치무대에서 제거함으로써 중소의 영향력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반복되는 인사교체 및 ‘이이제이’식 용인술로 인해서 반김 일성 정서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서휘, 윤공흠, 고봉기, 리필규 등 소련계 비판운동에 앞장섰던 연안계 간부들은 김일성의 토사구팽(兔死狗烹)에 분노하였으며, 이는 그들이 김일성 비판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동시에, 연안계 비판으로 인해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던 김두봉, 최창익, 이상조 등의 불만도 함께 고조되었다. 박창옥, 김승화 등 소련계 간부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을 공격한 연안계 및 국내출신 간부들에게 불만을 품었지만, 추후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 김일성 주도에 계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크게 분노하였다.<sup>66)</sup> 그러나 1956년 초 이들은 이미 권력의 핵심에서 해임되었거나 곧 해임될 위기에 처해 있어 조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바로 이때, 1956년 2월 소공20차당대회에서 제기된 흐루쇼프(N. Khrushchev)의 스탈린 비판은 권력 핵심에서 밀려난 간부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였다. 서휘, 이상조, 고봉기 등은 이에 크게 고무되었으며, 소련의 권위와 사회주의 진영의 사상 변화라는 외부

---

중앙에 보낸 서신”(1956/09/05), АВПРФ, ф.5446, оп.98, д.721, л.161~181; “이바노프 대사와 박정에 회담기록”(1956/04/18), РГАНИ, ф.5, оп.28, д.410, л.124~125; “이바노프 대사와 박의완 회담기록”(1956/05/18), РГАНИ, ф.5, оп.28, д.410, л.175~178; “이바노프 대사와 박의완 회담기록”(1956/06/05), РГАНИ, ф.5, оп.28, д.410, л.203~208 .

66) “필라토프 참사와 박창옥 대담기록”(1956/07/21), АВПРФ ф.102, оп.12, д.6, п.68(페이지 수 미상).

정세를 명분으로 김일성과 당 지도부를 비판할 것을 결심하였다. 또한 1956년 6~7월, 김두봉, 최창익, 박창옥, 김승화 등 일부 최고위급 간부들도 동조하고 나서면서 일부 연안계와 소련계로 구성된 “8월그룹”이 형성되었다. 결국, 흐루쇼프의 연설이 반김일성 정서의 폭발과 “8월그룹” 형성에 결정적인 원동력을 제공했던 것이다. 반면, 흐루쇼프의 연설로 인해 김일성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는 자신의 독재 체제 및 개인숭배 현상을 변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sup>67)</sup>

#### 4. 8월그룹의 두 차례 인사정책 시정요구와 김일성의 최종 승리

소공20차당대회 폐막 이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전개된 개인숭배 비판과 정치적 혼란은, 김일성에게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sup>68)</sup> 이에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다. 첫째, 각종 매체에서 자신에 대한 지나친 찬양을 중지시켰다. 이에 따라 1956년 2월부터 『노동신문』 및 기타 매체에서 김일성의 단독사진과 “경애하는 수령” 등 찬양조의 호칭 등이 대폭 감소하였다.<sup>69)</sup> 둘째, 김일성은 북한에도

67) 8월그룹 성원들은 소공20차당대회가 자신들이 비판에 나서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서휘, 윤공홍외 2인이 중공중앙에 보낸 서신”(1956/09/05), АВПРФ, №.5446, оп.98, д.721, л.161-181.

68) 김일성은 박정애의 수 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소공20차당대회의 참석을 거절하였다. “필라토프 참사와 박의완 회담기록”(1956/01/24), ЦХСД, №.5, оп.28, д.412, л.66-69.

69) “이바노프 대사와 박의완 회담기록”(1956/03/21), РГАНИ, №.5, оп.28, д.411, 165-168; “소련외교부 정보위원회 보고서: 조선의 개인숭배에 관하여”(1956/04/05), РГАНИ, №.5, оп.28, д.410, л.57-67.



일부 개인숭배 현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지만, 문제는 자신에 대한 개인숭배가 아닌 박헌영에 대한 개인숭배라고 주장하였다.<sup>70)</sup> 특히, 이 주장은 조선노동당의 공식 입장이 되어 전당적으로 선전되었다.<sup>71)</sup> 그러나 당시 소련과 동유럽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소련 주재 북한 대사 이상조와 토사구팽 당한 연안계 간부들은 당 지도부의 입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1956년 4월 조선노동당제3차당대회(이하 제3차당대회로 약칭) 개최 직전, 이상조와 직업총동맹위원장 서희는 불만을 품은 일부 연안계 간부들을 대표하여 김일성을 면담하고 소공20차당대회 정신을 조선노동당에 반영하고 실천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였다.<sup>72)</sup> 서희와 이상조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과 내각지도부에 “아침쟁이”와 “관료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으며, 이들이 조장한 김일성 개인 숭배로 인해 집체지도원칙이 크게 훼손되었다. 둘째, 역사서술 및 교양부문에서 김일성이 주도한 항일투쟁과 조국광복회 등 혁명활동만이 찬양되고 있는 반면, 이외 애국지사들의 항일 및 혁명운동사는 모두 부정되고 있다. 또한 역사왜곡을 바탕으로 “조국광복회” 성원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세력이 출현하였다. 셋째, 공업건설에서 잘못된 투자 및 자원 낭비가 발생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 식량수매정책에서 오류가 있었지만, 지도부는 여전히 인민생활개선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sup>73)</sup>

---

70) 같은 글.

71) 같은 글.

72) 대담에는 최용건과 김영주도 배석하였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서희, 윤공흠 외 2인이 중공중앙에 보낸 서신”(1956/09/05), АВПРФ, ф.5446, оп.98, д.721, л.161~181.

73) 8월그룹은 10여 개 비판항목을 제기하였다. 본문은 그중 핵심적 내용을 귀납

서휘, 이상조 발언의 핵심은 지도부의 정책 과오에 대한 비판보다는 김일성 개인숭배 현상과 이를 조장하는 세력을 성토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이는 당시 지도부 내 정치투쟁을 은유한 것이었다. “아침쟁이”와 “관료주의자” 그리고 조국광복회 종파세력은 소련계와 연안계 비판을 지시한 간부들, 즉 박정애, 김창만, 한상두, 박금철 등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는 김일성 추종세력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목적은 소공20차당대회 정신과 지도부의 정책적 과오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적대세력을 비판하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탄압 중지와 상술한 간부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데 있었다고 풀이된다.

김일성은 이들의 비판을 경청하였지만 요구는 묵살하였다. 1956년 4월 23~29일 개최된 제3차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는 박헌영 개인숭배만을 비판하는 기존의 당론을 그대로 되풀이하였다. 또한 정전 이후 지도부의 정치, 경제적 성취만이 찬양되었을 뿐, 정책실행 과정에서의 과오는 언급하지 않았다.<sup>74)</sup> 서휘, 이상조의 핵심적 요구사항이었던 지도부 인사교체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정애, 박금철, 김창만, 한상두 등은 당 부위원장, 상무위원회 위원과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출되면서, 8월그룹이 해임을 요구한 이들의 권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sup>75)</sup> 주목할 점은, 서휘, 이상조, 윤공흠, 고봉기 등 불만을 제기한 일부 연안계 간부들도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어 과거보다

---

정리하였다(위의 글). 8월그룹의 비판 과정과 내용에 대한 토론은 이하 연구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윤경섭,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206~247쪽).

74)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진술한 중앙위원회 사업총결보고,”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1권, 287~369쪽.

75)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선거된 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들,” 『근로자』, 제5호(1956), 149~152쪽.

승진되었다는 점이다.<sup>76)</sup> 이는 김일성이 불만을 가진 간부들을 회유하여 불만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제3차당대회 이후 당내 불만은 더욱 심화되었다. 명목상 국가수반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김두봉과 상무위원 최창익이 비판에 가세하였다.<sup>77)</sup> 좌천된 소련계 김승화, 박창옥도 차례로 참여하였다. 특히,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소련계 비판에 선봉에 섰던 고봉기는 박창옥에게 과거 그를 비판한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면서 박금철과 한상두가 소련계에 대한 비판을 지시하였다고 폭로하였다.<sup>78)</sup> 이로써 일부 연안계와 소련계 간부들은 구원(舊冤)을 접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연대할 수 있었다. 소위 “8월그룹”은 김일성 개인숭배를 비판하고 집체지도원칙 준수를 주장하면서, 김일성 주위의 소위 “아침꾼”들을 당 지도부에서 축출할 것을 결의하였다.<sup>79)</sup> 이들은 자신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소련외교관 및 대사관과 접촉하여 소련이 직접 김일성에게 “필요한 충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sup>80)</sup>

---

76) 서취, 이상조, 리필규는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으로 처음 선출되었다. 윤공흠은 북로당창립대회 중앙위원이었던 윤공흠은 북로당 제2차당대회에서 탈락하였다가 제3차당대회에서 다시 중앙위원회로 진출하였다.

77) “이바노프 대사와 최창익 대담기록”(1956/06/08), РГАНИ, ф.5, оп.28, д.410, л.210~214; 1956년 7월 김두봉은 김승화와와의 두 차례 회담에서 8월그룹의 주장에 긍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동시에 소수의 간부들만이 동조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소련의 지지확보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필라토프 참사와 김승화 대담기록”(1956/07/24), АВПРФ, ф.102, оп.12, д.6, л.68(페이지 수 미상).

78) “필라토프 참사와 박창옥 대담기록”(1956/07/21), АВПРФ ф.102, оп.12, д.6, л.68(페이지 수 미상).

79) *Ibid.* “소련외교부 극동국국장 쿠르듀코프와 이상조 회담기록”(1956/06/16), РГАНИ, Ф.5, оп.28, д.412, л.238~24 1; “이바노프 대사와 최창익 회담기록”(1956/06/08), РГАНИ, ф.5, оп.28, д.410, л.210~214.

경제원조 요청을 위해 소련 및 동유럽 국가순방에 나섰던 김일성은 6월 6일과 7월 9일, 소련지도부와 회담에서 자국의 정치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sup>81)</sup> 8월그룹 등을 통해 북한의 정치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소련지도부의 인식은 이들이 제기한 비판과 유사하였다. 소련지도부는 개인숭배의 책임은 김일성 본인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김일성 개인숭배와 관련된 현상들을 비판하였다. 또한, 북한지도부가 인민생활수준 향상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82)</sup> 김일성은 소련지도부의 비판을 모두 인정하고 수정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의제인 당 지도부 인사에 대해서 김일성과 소련지도부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소련지도부는 8월그룹의 주장대로 박정애, 박금철 등이 김일성 개인숭배를 조장하였다고 인식한 반면, 김일성은 이를 적극 부인하고 그들을 변호하였다. 이에 소련지도부는 판단을 유보하였다.<sup>83)</sup>

소련은 김일성에게 당내 문제해결 및 갈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와 각종 정책적 결함들을 자아비판 하고 즉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둘째, 자아비판과 결함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김일성 및 당 지도부가 “능동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

---

80) 8월그룹 성원들은 “만약 형제국가들의 지지가 없다면, 모든 권력을 혼손에 거머쥔 김일성 독재를 비판하는 것은 현재 상황하에서 희생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Ibid.*;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서휘, 윤공흠외 2인이 중공중앙에 보낸 서신,”(1956/09/05), *АВІРРФ*, ф.5446, оп.98, д.721, л.161~181.

81) 소련지도부와 김일성의 회담기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필자는 회담을 언급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함으로써 의제, 양측의 의견, 회담결과를 추론하였다. *Ibid.*; “毛澤東接見蘇共中央代表團談話記錄”(1956/09/18), 베이징대한반도연구센터 소장 미출판자료; “毛澤東接見尤金談話記錄”(1956/11/30), 베이징대한반도연구센터 소장 미출판 자료.

82) *Ibid.*

83) *Ibid.*

다. 즉, 자아비판 및 수정조치를 당내 반대파가 아닌 김일성이 직접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셋째, 소련은 박정애, 박금철 등 당 지도부 인사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였으며, 당 지도부를 비판한 8월그룹을 탄압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련은 경제원조의 추가적 제공을 약속하며 김일성의 자발적인 비판과 개혁조치를 격려했다.<sup>84)</sup> 이처럼 소련은 김일성 및 당 지도부의 결함들을 지적하면서도, 김일성에 의한 개혁과 이를 통한 북한의 정치적 안정을 희망하였다.

소련과 김일성의 회담 내용은 평양주재 소련대사관 참사 필라토프(S. Filatov)를 통해, 8월그룹에게도 전달되었다. 8월그룹은 소련의 지적 사항이 자신들의 문제의식과 동일하였기 때문에 소련이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크게 고무되었다.<sup>85)</sup> 김일성이 귀국한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김일성 및 당 지도부와 8월그룹은 수차례 개별 회담을 진행하였다.<sup>86)</sup> 8월그룹의 비판은 4월 서취와 이상조가 제기한 내용과 같았다. 이들은 김일성 개인숭배, 김일성 중심의 역사 재구성 및 경제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들을 재차 비판하였으며, 김일성이 지난 10여 년간 출신이 다른 간부들을 서로 이간시켰다고 지적하며 그의 ‘이이제이식 용인술’도 비판하였다.<sup>87)</sup> 이에 김일성은 이전과

---

84) 이바노프 대사는 “형제국 방문과 경제원조”는 김일성 및 당 지도부가 자아비판의 주도권을 잡는 데 “극히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바노프 대사와 박정애 회담기록”(1956/08/07), РГАНИ, ф.5, оп.28, д.410, п.340~341.

85)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서취, 윤공흠외 2인이 중공중앙에 보낸 서신”(1956/09/05), АВПРФ, ф.5446, оп.98, д.721, лл.161~181.

86) *Ibid*; “필라토프 참사와 윤공흠 대담기록”(1956/08/02), АВПРФ, ф.102, оп.12, д.6, п.68(페이지 수 미상).

87) “필라토프 참사와 박창욱 대담기록”(1956/07/21), АВПРФ ф.102, оп.12, д.6, п.68(페이지 수 미상).

달리 비판 내용을 솔직하게 인정하였다. 그는 개인숭배와 일부 정책적 결함에 대한 비판이 정확하다고 인정하면서,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을 약속하였다.<sup>88)</sup> 이는 김일성이 귀국 직후에는 소련이 제시한 방안을 실천할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김일성과 8월그룹은 두 가지 문제, 즉 지도부 인사와 토론 방식에 대해서 좁힐 수 없는 의견 차를 보였다. 먼저 “8월그룹”은 당 부위원장 박정애, 박금철, 정일룡, 김창만과 내각부수상 정준택의 해임을 재차 요구하였다.<sup>89)</sup> 그러나 김일성은 이를 “지도부 일부의 사업상 과오를 구실로 지도부 전체의 교체”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일축하였으며, 자신이 지도직책에서 사퇴할지언정, 당 지도부 교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sup>90)</sup> 둘째, 양측은 당 지도부의 결함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8월그룹은 전원회의의 같은 대규모 회의에서 김일성 개인숭배와 당 지도부의 과오를 전면적으로 토론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김일성은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이유로 들면서,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들만 참석하는 회의를 따로 개최하여 토론을 진행한 뒤, 결의된 내용을 전원회의에서 보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sup>91)</sup> 토론 방식, 즉 회의 규모는 각자의 정치적 이해

---

88)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서희, 윤공흠외 2인이 증공중앙에 보낸 서신”(1956/09/05), АВПРФ, ф.5446, оп.98, д.721, л.161~181; “필라토프 참사와 윤공흠 대담기록”(1956/08/02), АВПРФ, ф.102, оп.12, д.6, п.68(페이지 수 미상).

89) “필라토프 참사와 최창익 대담기록”(1956/07/23), АВПРФ, ф.102, оп.12, д.6, п.68(페이지 수 미상); “이바노프 대사와 남일 대담기록”(1956/08/23), РГАНИ, ф.5, оп.28, д.410, л.354~356.

90) “이바노프 대사와 김일성 대담기록”(1956/8/6~7), РГАНИ, ф.5, оп.28, д.410, л.335~340.

91) 김일성은 폴란드, 헝가리 사태의 원인은 강력한 지도력의 부재와 개인숭배를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토론했던 것이라고 비판하고, 개인숭배 비판을 명분으로

를 반영한 것이었다. 8월그룹의 방안은 김일성과 당 지도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다양한 불만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였던 반면, 김일성의 방안은 비판수위를 통제하기에 유리하였다. 또한 상무위원 대다수는 8월그룹이 해임을 요구한 당사자들로서, 상무위원회에서의 토론은 김일성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당 지도부와 8월그룹 간의 협상 과정에서 소련은 일관되게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하였다. 소련은 김일성에게 8월그룹을 탄압하지 말 것을 상기시키면서도 8월그룹이 요구한 지도부 교체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김일성 및 당 지도부의 위신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지도부 결함은 소규모 회의에서 토론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소련은 승부의 향배를 결정할 수 있는 토론 방식에서 김일성 방안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실상 김일성에게 지극히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주었다.<sup>92)</sup>

김두봉은 소련의 권고를 수용하였으며 그의 발의에 따라 8월 21~23일, 상무위원회 특별회의가 개최되었다.<sup>93)</sup> 회의에는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정애, 박금철, 남일, 김창만 등 다수의 친김일성 간부, 8월그룹 김두봉, 최창익, 그리고 중립 성향의 조선계 소련인 박의완이 참여하였

---

당 지도부의 권위를 약화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Ibid.*; “필라토프 참사와 최창익 대담기록”(1956/07/23), АВПРФ, ф.102, оп.12, д.6, п.68(페이지 수 미상).

92) 소련대사관은 8월그룹에게 당 지도부의 위신을 훼손하는 “경솔한 행동”을 해선 안된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김일성 측에게는 8월그룹을 탄압해선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필라토프 참사와 박창옥 대담기록”(1956/07/21), АВПРФ ф.102, оп.12, д.6, п.68(페이지 수 미상); “페트로프 대리대사와 남일 대담기록”(1956/07/24) РГАНИ, ф.5, оп.28, д.410, л.301~303; “이바노프 대사와 남일 대담기록”(1956/08/18), РГАНИ, ф.5, оп.28, д.410, л.347~348.

93) *Ibid.*

다. 핵심적 의제는 당 지도부의 정책결합이 아닌 인사문제였으며, 양측은 서로를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장시간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친김일성 상무위원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두봉과 최창익은 점차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회의장 밖에서도 김일성의 방해공작이 진행되었다. 김일성과 박정애, 박금철 등은 중립 성향의 박의완 등 다른 간부들과 면담에서 소련이 김일성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8월그룹을 지지하지 말 것을 강요하였다.<sup>94)</sup> 또한, 이들은 8월그룹 김승화의 모스크바 유학을 결정함으로써 그의 정치활동을 차단하였다.

결정적으로 회의 마지막 날, 김두봉이 최창익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최창익은 상무위원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상무위원회 특별회의는 8월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자제할 것과 당 지도부 인사정책은 정확하였다는 기존 입장을 통과시켰다.<sup>95)</sup> 이뿐만 아니라, 8월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발표할 예정이었던 “상무위원회 결정서”에는 김일성 개인숭배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커녕, 오히려 연안계 간부들을 종파주의자로 암시하는 구절이 추가되었다.<sup>96)</sup> 이처럼, 상무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이미 8월그룹의 패배는 확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8월 30~31일 개최된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첫 순서였던 김일성의 총결보고 이후 곧 바로 8월그룹을 겨냥한 김일성 추종 세력들의 준비된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에 윤공흠 및 8월그룹 참석자

---

94) “이바노프 대사와 남일 회담기록”(1956/08/23), РГАНИ, ф.5, оп.28, д.410, лл.354-356.

95) “이바노프와 박의완 회담기록”(1956/08/29), РГАНИ, ф.5, оп.28, д.410, лл.317-319.

96) *Ibid.*; “형제적 제 국가를 방문한 정부대표단의 사업총화와 우리 당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들에 관하여(1956년 8월 30~31일),” 『결정집(1956년도)』, 2~23쪽,



들은 김일성 및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였지만, 사실상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실패하였다.<sup>97)</sup> 이것이 바로 “8월전원회의 사건”의 전모였다.

지금까지 8월전원회의는 8월그룹이 김일성에 대한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비판을 시도했던 자리로 알려졌지만 사실 승패는 상무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이미 판가름 났으며, 8월전원회의는 이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윤공흠, 서휘, 리필규는, 연안계이자 문화선전부 부상 김강과 함께 당일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비록 “8월전원회의 사건”은 김일성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4인의 망명자들과 소련주재 북한대사 이상조의 요청으로 인하여, 중소 양국이 북한 내정에 직접 개입하는 “9월공동간섭”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8월전원회의 사건”의 여파로 북·중·소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 5. 맺음말

1956년 4월부터 8월 말까지 전개된 김일성과 8월그룹 간의 투쟁은 김일성과 다른 계파 간의 권력경쟁도, 정전 이후 전후경제 복구를 둘러싼 정책갈등도 아닌, 김일성의 새로운 추종세력들로 구성된 당 지도

---

97) “이바노프 대사와 김일성 회담기록”(1956/09/01), РГАНИ, ф.5, оп.28, д.410, л.319~321; “이바노프 대사와 남일, 박의완 회담기록”(1956/09/06), РГАНИ, ф.5, оп.28, д.410, л.326~332;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서휘, 윤공흠 외 2인이 중공중앙에 보낸 서신”(1956/09/05), АВПРФ, ф.5446, оп.98, д.721, л.161~181.

부의 교체 여부를 둘러싼 인사 갈등이었다. 8월그룹이 제기한 각종 비판들은 사실상 명분에 불과하였으며, 그들의 진정한 불만은 핵심 권력에서 도태된 자신들의 처지와 자신들에 대한 김일성의 배신행위에 있었다.

8월그룹은 김일성의 하야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공20차당대회 결정과 소련지도부의 김일성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이용하여, 김일성에게 현 지도부 중 일부를 해임할 것과 지도 직책을 자신들에게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러한 요구를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자신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로 인식하였으며, 자신의 직을 걸고 현 지도부 전체를 보호하려 하였다. 아마도 김일성은 자신과 지도부의 운명을 동일시한 것으로 보인다.

투쟁의 전 과정에서 소련은 일관되게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김일성 체제의 공고화를 의미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련은 8월그룹에게 김일성의 위신을 훼손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였다. 결정적으로 소련은 김일성 및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라고 권고하면서, 김일성에게 지극히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었다. 물론 소련은 김일성에게도 8월그룹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지만, 이 역시 정치적 안정을 위한 제안이었다. 결론적으로, 8월그룹은 소련의 태도를 오판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반면 김일성은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소련의 의도를 심분 활용함으로써 8월그룹을 조기에 북한의 정치무대에서 제거할 수 있었다.

■ 접수: 7월 11일 / 수정: 11월 20일 / 채택: 11월 25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김일성, 『김일성선집』 3(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_\_\_\_\_,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_\_\_\_\_,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결정집(당 중앙위원회 1946.9~1951.11)』(평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51).

\_\_\_\_\_, 『결정집(1953년도)』(평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53).

\_\_\_\_\_, 『결정집(1955년도)』(평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55).

\_\_\_\_\_, 『결정집(1956년도)』(평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56).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직속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교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해방후10년일지(1945~1955)』(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5).

#### 2) 논문

고봉기,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다,” 『근로자』, 제4호(1954).

김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 주체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 『력사과학』, 제3호(2001).

서휘, “직업동맹 사업에서의 몇 가지 결함과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에서의 그의 임무,” 『근로자』, 제10호(1953).

윤공흠, “당 중앙 위원회 제5차 전원 회의 문헌은 우리들의 행동 강령이다,” 『근로자』, 제1호(1953).

최창익, “인민은 역사의 기본 추진력,” 『근로자』, 제9호(1947).

#### 3) 신문

리필규, “김일성 장군의 교시를 지침으로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가 되자,” 『로동

신문』, 1952년 3월 30일.

박금철, “당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의 당성 단련,” 『로동신문』, 1956년 2월 16일.

윤공흠, “수령의 교시를 실천하기 위한 평양시 당단체의 투쟁,” 『로동신문』, 1952년 9월 1일.

최창익, “김일성 장군의 교시를 지침으로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가 되자,” 『로동신문』, 1952년 3월 24일.

\_\_\_\_\_, “김일성동지는 항일유격투쟁의 조직 지도자이다,” 『로동신문』, 1952년 4월 18일.

한상두, “당 건설에서의 몇가지 문제,” 『로동신문』, 1956년 3월 12일.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김국후,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스탈린이 급파한 고려인 500명의 슬픈 역사』(파주: 한울, 2013).

김광운, 『북한정치사1 건당·건국·건국의 역사』(파주: 선인, 2003).

『북조선실록』, 제1권(서울: 북한대학원대, 2018)..

『북한관계사료집』, 제73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3).

『북한관계사료집』, 제77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5).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정체성·구조』(파주: 한울, 2010).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서울: 선인, 2005).

심지연, 『잊혀진 혁명가의 초상: 김두봉연구』(서울: 인간사랑, 1993).

\_\_\_\_\_, 『최창익연구』(서울: 백산서당, 2009).

이선영·김병민·김재용 엮음, 『현대문학비평자료집 2』(서울: 태학사, 1993).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서울: 역사비평사, 2003).

정상진, 『아무르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서울: 지식산업사, 2005).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1집(서울: 국토통일원 1980).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권(서울: 중앙일보사,

1992).

## 2) 논문

김동길·한상준, “제2의 해방: 북한자주화와 1956~57년의 중국·북한관계,” 『국가전략』, 제20권 2호(2014), 69~108쪽.

배개화, “당, 수령, 그리고 애국주의: 이태준의 경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7호(2012), 169~206쪽.

백준기, “1950년대 북한의 권력갈등의 배경과 소련,”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서울: 역사비평사, 1998), 438~489쪽.

\_\_\_\_\_, “1950년대 북한의 정치적 위기와 소련의 연관성,” 『중소연구』, 제22권 2호(1998), 121~140쪽.

윤경섭,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조수룡, “전후 북한에서의 소련계 숙청과 국적문제(1954~1958),” 『동북아역사논총』, 제56호(2017), 246~287쪽.

## 3) 신문

강상호, “내가 치른 북한 숙청: 전 내무상 부상 강상호 증언,” 『중앙일보』, 1993년 2월 1일.

## 4) 기타 자료

장학봉, 『피와 눈물로써 써여진 우리들의 력사』(미국의회도서관소장), <https://www.loc.gov/rr/asian/SovietKorean.html> (검색일: 2019년 3월 12일).

## 3. 국외 자료

### 1) 단행본

Hanson, Philip, *The Rise and Fall of the Soviet Economy*(London: Routledge, 2014).

Lankov, Andrei,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ization 1956*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최강, 『조선의용군사』(연변:연변인민출판사, 2006).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第三冊(北京:中央文獻出版社, 1992).

逢先知·金沖及 主編, 『毛澤東傳(1949~1976)』上(北京:中央文獻出版社, 2003).

沈志華, 『最後的天朝: 金日成與中朝關係』(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18).

## 2) 논문

Okonogi, Masao, “North Korean Communism: In Search of Its Prototype,” in Suh Dae-Sook(ed.), *Korean Studies: New Pacific Currents*(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pp.177~205.

Person, James F., “We Need Help from Outside: The North Korean Opposition Movement of 1956,”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Paper#52*(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2006).

\_\_\_\_\_, “North Korea in 1956: Reconsidering the August Plenum and the Sino-Soviet joint Intervention,” *Cold War History*(2018), pp.1~22.

Szalontai, Balazs, “You Have No Political Line of Your Own: Kim Il Sung and the Soviets 1953~1964,”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14/15(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2004), pp.87~103 .

## 3) 신문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代表團談判公報,” 『人民日報』, 1953年 11月 24日.

## 4) 기타 자료

“毛澤東接見蘇共中央代表團談話記錄,” 1956.9.18.

“毛澤東第二次接見蘇共中央代表團談話記錄,” 1956.9.23.

“毛澤東接見尤金談話記錄,” 1956.11.30.

АВПРФ(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 ф.0102, оп.7, и .27, д.47, лл. 115~120; ф.0102, оп.12, д.6, и .68(페이지 미상); ф.0102, оп.13, и .72, д.5, лл.159~162, лл.805~807; ф.0480, оп.4, и .14, д.46, лл.157~239; ф.5446, оп.98, д.721, лл.161~181.

ГАРФ(러시아연방국립문서보관소), ф.5446, оп.98, д.721, лл.182~202.

РГАНИ(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ф.5, оп.28, д.314, лл. 12~15, лл. 33~63; ф.5, оп.28, д. 410, лл. 57~67, лл.124~125, лл.126~128, лл. 175~178, лл.203~208, лл.210~214, лл. 301~303, лл. 304~308, лл. 317~321, лл.326~340, лл.347~356; ф.5, оп.28, д.411, лл.165~168; ф.5, оп.28, д.41 2, лл.219~222, лл.238~241; ф.5, оп.30, д.33, лл. 64~71.

ЦАМОРФ(러시아연방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ф.142, оп.540936, д.1, лл.26~27.

ЦХСД(러시아당대문헌보관소 현 러시아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ф.5, оп.28, д.314, лл.200~211; ф.5, оп.28, д.410, лл.73~85; ф.5, оп.28, д.412, лл. 6~20, лл.66~69, лл.75~83, лл.96~99, лл.109~116, лл.128~132.

## 1956 August Plenum Incident Revisited: Kim Il-sung's Cadre Policy for 'Divide and Rule'

Kim, GyuBeom (Peking University)

The 1956 August Plenum Incident has been viewed as an outcome of either a long-standing power struggle between Kim Il-sung and his dissenters or a conflict surrounding policy line. However, newly-unearthed documents demonstrate that the incident members had actively cooperated to strengthen Kim's rule and policies, and that they began to denounce Kim only after they were deprived of power in early 1956.

This study explores the cause of the incident by investigating cooperation and conflict between Kim Il-sung and the incident members from 1945 to August 1956. The incident stemmed from Kim's preemptive cadre policy designed to forestall infiltration of the Soviet and Chinese policy line into North Korea. Some Yanan faction members and Korean Soviets who were deprived of their power due to the policy, and galvanized by de-Stalinization campaign in February 1956 demanded that Kim Il-sung recalibrate the policy. However, Kim



perceived their demand as a challenge to his rule and suppressed them by taking advantage of patronage of Moscow which invariably prioritized stability of his rule. The outcome of this power struggle was already decided at the special session of the Party's Standing Committee on August 23, while the 1956 August Plenum was a stage reaffirming the group's defeat.

Keywords: Kim Il-Sung, Soviet Union, August Group, de-stalinization campaign, 1956 August Plenum